

##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이야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

암환우는 낫는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 상황버섯의 100배의 효과

지난 10월, 제가 속한 노회에서 제주도에서 노회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매번 예배 찬양을 제가 인도하다 보니 이번에도 기타를 둘러매고 목사님들을 섬길 마음으로 수양회에 참석했습니다. 제주도는 제 인생에서 네 번째 방문이었지만, 수양회를 준비하신 목사님들께서 준비한 일정 덕분에, 그동안 가보지 못한 새로운 곳들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황버섯 농장을 찾은 일이 특별했습니다. 제주도 하면 흔히 떠오르는 것이 글 농장인데, 제주도청에서 최근에는 상황버섯 재배를 글 대신 대체 작물로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버섯이 항암 작용에 효과가 있고, 면역 세포(NK 세포)를 활성화하며 항염 작용도 크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당장 우리 환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환우들을 위해 30개를 구입했는데, 개당 10만 원이라 총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카드 값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우선 사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함께하신 한 목사님 사모님이 암 환우이셨는데, 상황버섯을 구입하지 않으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다시 농장으로 가서 하나를 더 구입해 사모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저는 센터에 돌아와서 환우들께 상황버섯이 좋다고 소개하면서, 제가 이 상황버섯 가루를 사 오게 된 이유와 배경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 시간에 손님으로 오셨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이 상황버섯 30개를 모두 구입해 우리 환우들께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녁 예배 준비를 하던 오후에 전도사님께서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다”라며 저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환우들과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곳을 8년간 섬기면서 손님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 다소 놀랐습니다. 그 후 저녁 식사까지 마친 후에야 목사님을 잠시 뵙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희 어머니의 책인 “옳고 있는 사람과 함께 올 수 있어서 행복하다”를 통해 저희를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감리교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 차 광림 수도원에 계셨다가, 청평에 꼭 오고 싶어 방문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원래 저희 같은 총신대학원에서 M.Div 과정을 시작하셨는데,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 성추행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을 겪으며 목회에 대한 마음을 접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있어 미국으로 가 감리교에서 신학을 재개하신 뒤 감리교 목사로서 다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전, UMC(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하는 목사에게 안수를 주며 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큰 결단을 내리셨고, UMC를 탈퇴하고 KMC로 교단을 옮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감리교회에서는 연회(교단의 지역 단위)의 권한이 강해 개 교회의 재산도 연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내놓고 탈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현재 시카고 인근에서 어렵게 목회를 이어가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과 대화하는 내내 그분의 깊은 신앙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녁 예배에도 참석해도 될까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겸손히 물으셨습니다.

“물론이지요. 당연히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로서도 큰 복입니다.”

저는 모든 예배를 마치고 전체 기도를 하기 전에 상황버섯 관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특별히 이 상황버섯을 어떻게 할지 정해 놓은 건 아니었지만, 일단 제가 제주도에서 환우들을 위해 사온 상황버섯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순서인 개인 기도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이어가던 중 예배실 문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떠 보니, 그 목사님이 문밖에서 무언가를 기다리시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목사님께 다가가 필요한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봉투를 두 개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건 제 딸 학비인데… 상황버섯 값이랑 딱 맞네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 이걸 사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아무래도 제가 이 일을 위해 이곳에 온 것 같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사님 이 돈은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강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더는 사양할 수 없어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목사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마도 예배 후 성도들의 기도를 멈추게 한 것은 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돋는 찬양의 불음을 조금 낮추고, 환우들께 주의를 집중시키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을 위해 제가 기도하는 중간에 기도를 끊은 건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다음이 아니라 아까 시카고에서 방문하신 목사님께서 이 상황버섯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분께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않아, 늦게까지 기도하신 분들께 먼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던 환우들께 하나씩 나눠 드리니 모두들 감격하며 감사해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환우들을 위해 산 상황버섯을 사온 것뿐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돈이 다시 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내와 식사를 하던 중 아내가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개 사모님께 선물을 하더니, 하나님이 30배로 축복하셨네.”

그 말을 듣고 저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몇 배로 축복을 하실까?”

“100배?” 아내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저 사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작은 섬김의 마음들이 이렇게 100배의 웃음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닐까 합니다. 상황버섯도 물론 좋은 효능이 있겠지만, 진짜 특별한 효과는 작고 진심 어린 섬김이 만들어 내는 100배의 감동일 것입니다.

글 / 이성일 목사

## 소중한 맘

‘소중한 맘 사역도 소중한 사람들 사역 중 하나입니다.’

##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째 1학년 때, 같은 반 아이 몇 명이 자신을 놀리고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배가 아프다, 학교에 못 가겠다 하는 말도 했었어요.

아이가 가슴을 쥐어 잡고 힘겨워하는데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명 나는 엄마인데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고 느끼는 그럴 때, 있잖아요.

딱 그렇더라고요.

그때,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히:10:30)

“태희야, 우리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가보자!”

“응!”

“널 괴롭게 하는 친구가 누구누구인지 말해줘”

아이가 말하는 대로 종이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유○○, 이○○, 최○○”

그리고 하늘을 향해 종이를 펴 보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똑똑히 봐주세요! 이 친구들이 우리 태희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엄마랑 아침저녁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걸 보자”

너만 당하지 말고 얼마든 맞대응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또, 복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임을 믿고 하늘에 기도를 올려보내기를 하던 어느 날,

학교에 다녀온 아이가 또 다른 친구로 인해 괴로운 일이 있었다며 말을 꺼냅니다.

“그래? 그 친구 누구야?” 묻는 순간,

“엄마,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이를 거야!”

“와~ 좋았어! 하나님께 빠짐없이 다 말하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분이신 것을 아이가 삶으로 경험해가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두 명은 전학을 갔고, 다른 한 명은 태희의 그 친구를 향한 시각을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은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글/ 박선인

##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 쉘터(Shelter) 이용안내

### 누가 사용 할 수 있나?

1.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이용하시고 계신 분.
2.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이용했던 분 중에 지내는 동안 문제가 없었던 분들.  
그러나 누구든 암환우여야 하고 병원 이용의 스케줄이 있어야 합니다.
3. 특별히 방사선 치료시에는 방사선 치료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치료하는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 쉘터 이용안내

1. 소중한 사람들에서는 병원에 갈 때에 셔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환우들마다 달라서 돌아오는 셔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쉘터가 시작되면서 돌아올 경우 서울역에서 돌아오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돌아올 때에는 김태희 전도사님과 상의하셔서 스케줄을 맞추시면 됩니다. 단, 하루 이틀 서울역에서 머물고 돌아올 수 있으니 먼저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은 기차로 이전처럼 돌아오시면 됩니다.



2. 퇴소했던 분들 중에도 지방에서 서울로 오셨을 경우 쉘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쉴 곳이 없어서 다른 친인척의 집이나 여관을 전전하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3. 3일 이상의 장기 거주는 불가합니다. 다만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만 치료 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경우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입소하셨을 때에 등록하신 보호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나 머물 수 없음에 양해를 부탁합니다.

소중한 사람들 쉘터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모두 제공됩니다. 예배는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서 와 동일하게 오전11시, 저녁 7시 예배가 드려지며 3층 채플실에서 TV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사용시 비용은 무료이지만 소중한 사람들의 운영을 위해 3층 채플실 현금함에 현금을 해주십시오. 소중한 사람들의 운영은 많은 인건비와 시설 운영이 들어갑니다. 현금은 개인의 자발적 마음에서 드리시면 됩니다. 서울역에서 드린 것은 서울역 쉘터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 교회 10.27 연합예배

오라 우리가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삼상11:14)

종교 개혁 주일에 광화문, 서울역,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개신교 연합예배가 있었다.

110만 명이 모여 일체의 정치적 발언 없이 오직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가 되었다.

방송에서는 교통체증을 운운 했지만 우리는 질서있고 깨끗하고 조용히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모두 나라를 위해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및 젠더 성 혁명에 대하여

젠더 갈등과 비혼주의에 대하여

프로 라이프 생명윤리와 낙태에 대하여

청소년 미약 중독에 대하여

북한과 자유 통일에 대하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 쉘터가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 소중한 사람들 리트릿 센터(Retreat Center)

말씀과 자연, 쉼을 통하여 힐링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도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얻는 것입니다.

● **입소 기준** : 예수 믿는 누구나 쉼을 원하시면 입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정신 질환, 전염병이 있는 분, 이단 단체 및 개인, 기타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제외).

● **입소 기간** : 한번 신청 시 최대 6일을 지낼 수 있으며, 퇴소기준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오셨더라도 토요일 오전에는 모든 입소자가 퇴실하게 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입소 비용** : 무료입니다.

● **입소 수칙** : 하루 두 번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믿음이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소 절차에서 교회 출석을 점검합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이므로 공동 생활을 원치 않으시면 입소가 어렵습니다. 최대 3~4명 정도가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031-582-0191) –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 –



## 리트릿 센터 이용 후기

### 리트릿 센터를 이용하셨던 분들의 소중한 후기를 담았습니다.

#### 1. 이\*민(5일간)

단체 생활하는 것이 부담이었는데, 와서 보니 같은 아름들을 겪고 있어서인지 금방 친해지고 서로 위해주는 섬김이 있어서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아서 원래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앤수기도도 해주셔서 물이 많이 치유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마음에 다시 한번 할례를 받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예배 가운데 뜨겁게 통곡과 함께 흐르는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숙소도 너무 좋고 물도 받도 맛있는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한 번쯤은 더 와서 회복의 시간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 2. 김\*숙(6일간)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도착해서 매일 가벼운 산행과 삼림욕을 할 수 있어서 물도 마음도 매우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3번 균형 잡식단으로 입맛을 잃은 환우들도 잘 먹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매일 오전과 오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저를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로 인도하셨는지 알게 되었고 어려웠으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려는 소명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들을 잊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곳에서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3. 임\*희(5일간)

다니엘 기도회에서 유정옥 사모님 간증을 듣고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가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딸이 전화해서 기독교에서 하는 요양원을 가면 영혼육이 회복된다고 하면서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권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안식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함께 물과 공기도 너무나 좋았고 항암과 방사선치료로 걷는 것이 어려웠는데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집에서는 먹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음식도 맛있고 예배의 회복이 되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나의 닫힌 입이 열리고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동안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점점 답답한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믿을 분은 나를 지으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는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 4. 엄\*란(6일간)

모든 치료가 끝나고 힘들었던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와서 맑은 공기와 맛있는 식사, 그리고 아침 통독부터 모든 예배, 중보기도 시간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꿈꾸는 것 같이 행복해서 하루하루가 지나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좋은 추억을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아픈 환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이런 좋은 체험을 하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방문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 5. 최\*정(6일간)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서 리트릿센터 체험 경험을 하였습니다. 건강이 허락될 때는 스스로 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다가 몸이 아파서야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주님은 늘 제게 손을 내미셨는데 그때마다 전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아침 예배와 중보기도 그리고 저녁예배를 드리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께 조금은 다가간듯해서 너무 기쁩니다.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소중한 시간들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 6. 박\*일(6일간)

조카를 통해서 알게 된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대기가 많다는 이야기에 그냥 끊으려고 하다가 리트릿센터에서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찬양하면서 부흥회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다시 되짚어 보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았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았습니다. 매 끼니마다 수고하여 대접하는 손길에 감사드리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계속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 7. 원\*분(6일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딱 맞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암을 하고 부랴부랴 달려온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는 나에게 참된 안식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체력에 한계가 와서 입맛까지 없었는데 며칠 여기 있으면서 입맛을 찾았고 몸에 힘이 생겼습니다. 육체적인 안식뿐 아니라 매일 드리는 두 번의 예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제가 혼자 찬양하는 것이 버거웠는데, 함께 부르다 보니 목소리도 커지고 찬양 가사에 은혜가 되어 눈물이 흐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쫓아 버렸습니다. 주님!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환우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 8. 박\*희(5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제 삶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육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도, 숙소도, 식사도, 아름다운 자연도... 등등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귀한 순종, 섬김,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볼 것을 결심합니다.

#### 9. 정\*(6일간)

유정옥 사모님 간증을 듣고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리트릿센터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신선하고 맑고 상쾌한 공기, 매끈한 최고의 물, 은혜로운 말씀 예배와 기타 찬양 소리, 면역에 좋은 식재료로 맛있고 정성스러운 식사, 둘침대, 드럼세탁기까지 고급스러운 숙소와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이 모든 것들이 좋았습니다. 항암 1차후 계속되는 체중 감소와 식사를 못해서 힘들었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의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세계 열방을 향한 소중한 사람들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10월 청평 소중한사람들교회 현금

●학장현금●  
김병식(100,000) 김연자(500,000) 단선화(100,000) 단선화(1,000,000) 이기열(1,000,000)

●목적현금●  
조운래(6,798,656)

●천사현금●  
나일주(200,000) 모순영(200,000) 유정희(1,000,000) 유지혜(1,000,000) 최유운(1,000,000) 이호온(1,000,000) 김란수(1,000,000)

●십일조●  
김대휘(10,000) 노은순아들(293,189) 박용범(180,000) 박용범(280,000) 배윤경(60,000) 변영미(200,000) 변영미(300,000)  
심운화(272,000) 심태영(100,000) 유정희(200,000) 이성일(300,000) 장은미(252,000) 최영자(130,000) 추연국(170,000)

●감사현금●

감사현금(150,000) 강화석(20,000) 고선하(30,000) 고정형(10,000) 곽효정(10,000) 곽효정(30,000) 곽효정(280,000)  
구남진(100,000) 구민정(20,000) 구성자(10,000) 구성자(10,000) 구성자(50,000) 구현주(70,000)  
구현주(100,000) 구현주(100,000) 권오성(50,000) 권오성(50,000) 권오성(100,000) 김경자(200,000)  
김동일(280,000) 김명숙(300,000) 김명식(50,000) 김미성(20,000) 김미호(300,000) 김민정(100,000) 김병식(300,000)  
김병식(350,000) 김보영(50,000) 김선아(50,000) 김수진(400,000) 김순정(100,000) 김연자(50,000) 김연자(50,000)  
김연자(50,000) 김연자(50,000) 김연자(50,000) 김명관(100,000) 김우섭(150,000) 김은숙(20,000) 김점순(100,000)  
김점순(150,000) 김점순(200,000) 김종수(50,000) 김태경(30,000) 김태은(30,000) 김태희(100,000)  
김혜림(김운재)(100,000) 김혜영(50,000) 김혜운(20,000) 김혜정(20,000) 나미정(50,000) 나미정(50,000) 나일주(400,000)  
류병완(100,000) 류지숙(2,000,000) 무명(10,000) 박경애(50,000) 박경애(200,000) 박광숙(100,000) 박봉순(100,000)  
박봉순(20,000) 박선애(100,000) 박선인(115,666) 박재빈(10,000) 박정숙(50,000) 박자우(10,000) 박준자(100,000)  
박준자(100,000) 박준자(100,000) 박준자(100,000) 박준자(200,000) 방윤순(50,000) 배윤경(500,000)  
백인아(10,000) 백준자(100,000) 백준자(100,000) 백준자(100,000) 새롭(5,000) 서강일(50,000) 서금자(50,000)  
서미순(10,000) 서미순(10,000) 서미순(100,000) 서미순(100,000) 서미순(100,000) 소한태(10,000)  
송기승(30,000) 송용남(10,000) 송용남(10,000) 송용남(150,000) 신현옥(300,000) 신현화(10,000) 양경임(50,000)  
엄영란(50,000) 엄영란(150,000) 엄영란(200,000) 연명희(10,000) 연명희(100,000) 원영분(160,000) 유정옥(100,000)  
유정옥(100,000) 유정옥(100,000) 유정희(600,000) 유정희(600,000) 이경애(50,000) 이경순(500,000) 이상길(20,000)  
이상모(200,000) 이성숙(20,000) 이성일(350,000) 이신애(500,000) 이양복(10,000) 이영훈(200,000) 이옥경(30,000)  
이윤규(50,000) 이윤주(10,000) 이윤주(70,000) 이윤주(100,000) 이재희(100,000) 이재희(300,000) 이재희(300,000)  
이재희(300,000) 이재희(300,000) 이재희(300,000) 이준자(200,000) 이해형(300,000) 이해복(50,000) 이해복(50,000)  
이혜옥(100,000) 이혜옥(100,000) 이혜옥(100,000) 이해옥(50,000) 이해옥(100,000) 임경남(10,000) 임경희(50,000)  
임성숙(30,000) 임성숙(30,000) 임성숙(140,000) 임광복(50,000) 임광희(100,000) 임광희(100,000) 임광희(100,000)  
전대진(50,000) 전대진(50,000) 전대진(50,000) 임명희(250,000) 전온유(50,000) 정경희(200,000) 정경희(200,000)  
정은정(20,000) 정은정(20,000) 정은정(20,000) 정재윤(20,000) 정재윤(20,000) 정재윤(20,000) 정재윤(20,000)  
정종준(100,000) 정종준(100,000) 조정덕(100,000) 최경순(100,000) 최성숙(50,000) 최성숙(50,000) 최성숙(50,000)  
최명자(10,000) 최명자(10,000) 최명자(10,000) 최명자(10,000) 최명자(10,000) 최명자(10,000) 최명자(10,000)  
한창식(300,000) 한창식(300,000) 한창식(300,000) 황명자(10,000) 황명자(10,000) 황명자(10,000) 황명자(10,000)  
황명자(140,000) 황보순(100,000) 황우진(10,000) 황우진(20,000) 황우진(30,000) 황우진(60,000) 황우진(61,000)

●기관후원현금●  
가락제일교회(100,000) 계영산업(100,000) 국회기도회(50,000) 목회자원센터(200,000) 서울서교회(100,000) (\*)토탈이엔씨(100,000)

●CMS현금●  
Ahn Anna(100,000) 공운영(30,000) 김명숙(50,000) 김민정(20,000) 김성자(20,000) 김성자(20,000) 김영신(30,000)  
김운집(30,000) 김유진(10,000) 김인경(50,000) 김인경(50,000) 김인열(20,000) 김인열(20,000) 김지영(10,000)  
김진명(10,000) 김진명(10,000) 김태희(20,000) 김현정(100,000) 김현정(100,000) 김혜원(30,000) 나지웅(15,000)  
나지웅(15,000) 단선화(50,000) 도주은(100,000) 도주은(100,000) 문옥자(20,000) 문희순(10,000) 문희순(10,000)  
민현정(10,000) 박경미(20,000) 박상준(30,000) 박성환(50,000) 박연정(10,000) 박연정(20,000) 박원준(50,000)  
박윤희(30,000) 박혜영(200,000) 박효정(30,000) 변영미(50,000) 서종열(10,000) 서종열(10,000) 손미경(50,000)  
송연숙(50,000) 양운정(100,000) 오금단(20,000) 유미령(10,000) 유미령(10,000) 윤성록(50,000) 윤성록(50,000)  
윤인초(10,000) 윤인초(10,000) 이금순(50,000) 이다연(10,000) 이란주(50,000) 이미진(10,000) 이상민(150,000)  
이성립(100,000) 이소영(30,000) 이승은(30,000) 이승은(30,000) 이원인(150,000) 이윤섭(50,000) 이윤섭(50,000)  
이은숙(10,000) 이은숙(10,000) 이정자(50,000) 이정자(50,000) 이정자(50,000) 이주현(10,000) 이준영(10,000)  
이찬선(5,000) 이혜경(50,000) 임동규(20,000) 임성숙(30,000) 임성숙(30,000) 장미경(20,000) 장소현(30,000)  
장승아(10,000) 전하영(50,000) 전하영(300,000) 전하영(300,000) 정경희(30,000) 정경희(30,000) 정미선(50,000)  
정예은(5,000) 정우찬(30,000) 정이랑(10,000) 정일금(10,000) 정일금(10,000) 정일금(10,000) 정현명(50,000)  
조남남(20,000) 진성권(50,000) 최성(20,000) 최성(20,000) 최신숙(10,000) 최신숙(10,000) 최운숙(10,000)  
최운숙(10,000) 최운주(10,000) 최정임(20,000) 최정임(20,000) 하정민(10,000) 하정민(10,000) 하정숙(20,000)  
하혜원(10,000) 흥금주(10,000) 흥금주(10,000) 흥금주(10,000) 흥지연(50,000) 흥지연(100,000)

# 청평힐링센터 2024년 10월 - 수입·지출 보고서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목적현금	6,798,656	자동차 주유비 및 운영비	1,191,003
천사현금	5,400,000	자동차 할부금 및 보험료	713,008
십일조	2,927,189	식자재구입비	13,522,342
감사현금	21,131,666	전기요금	2,935,730
CMS현금	3,740,000	가스요금	659,200
		화재보험료	1,200,000
		우편발송비	186,880
		노화상회비	2,080,500
		홈페이지/ CMS사용료	1,724,800
		KT요금	1,193,410
		비품구입비(소모품)	1,663,100
		안전점검비	539,500
		급여인건비	16,511,360
		사회보장보험료	2,102,310
금월 수입 합계	39,997,511	지출 총액	46,223,143
전월 이월금	1,375,436		
차용금	5,000,000		
총 수입 합계	46,372,947	금월 잔액	149,804

## 소중한사람들 - 확장소망현금명단

1월 : 정진산, 김효선(2,000,000) 김나형(1,000,000) 김혜숙(10,000,000) 유정옥(10,000,000)  
2월 : 도주은(1,000,000) 박상준(1,000,000) 박진미(3,500,000) 이성일(10,100,000) 정일만(2,000,000)  
3월 : 강금내(1,000,000) 김명옥(1,000,000) 김연자(1,000,000) 김옥겸(2,000,000) 무명(100,000) 정현명(5,000,000)  
하지인(1,000,000)  
4월 : 박상준(1,000,000) 장미숙(500,000)  
5월 : 김계숙(1,000,000) 강정운(40,000) 김연자(1,000,000) 김태희(300,000) 장미숙(500,000) 장춘순(10,000,000)  
홍지희(200,000)  
6월 : 강정운(20,000) 구현주(1,000,000) 김승만(1,000,000) 김연자(500,000) 박준자(1,000,000) 변영미(1,000,000)  
서금자(500,000) 이윤주(5,000,000) 임맹자(1,000,000) 추연국(1,000,000) 추연소(1,000,000) 추연용(1,000,000)  
7월 : 강정운(20,000) 구현주(10,000,000) 김연자(500,000) 김태희(200,000) 도문식(500,000) 유지혜(1,000,000)  
이유경(8,000,000) 이진홍(더풀인테리)(200,000) 임맹자(1,000,000) 정경희(500,000) 헌금(1,000,000)  
8월 : 강정운(20,000) 김연자(500,000) 김영래(1,500,000) 단선화(100,000) 이유경(1,000,000) 정경희(1,000,000)  
최명자(50,000) 하미애(1,000,000) 혀태영(1,000,000) 헌금(500,000)  
9월: 강정운(20,000) 곽효정(1,000,000) 김병식(100,000) 김연자(500,000) 김영수,한이진(1,000,000) 김태희(100,000)  
단선화(100,000) 최명자(350,000) 확장소망한금(10,000,000)  
10월: 김병식(100,000) 김연자(500,000) 단선화(100,000) 단선화(1,000,000) 이기열(1,000,000)

\* 10월말 현재 총 124,720,000원

소중한사람들 확장소망현금 후원 계좌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교회

## 소중한사람들 - 소나무현금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여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자기 부담금을 지원  
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의료현금입니다.  
2024년 10월 씨앗현금 후원 : 김행심(10,000) 박정훈(100,000) 이민석(10,000) 이성숙(20,000) 이순미(30,000) 한종석(200,000)  
2024년 10월 소나무현금 지출: 유\*\* (2,501,280)

소나무 사역 후원 계좌 농협 351-1158-7628-73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 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에 천사회원이 되어주세요.

## 암환자들의 안식과 영혼구원을 위한 쉼터

소중한사람교회에서는 암 환우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암 환우 힐링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암은 가족 한 사람의 질병이 온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우와 가족들을 전인적으로 돌보아 드리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 인도 될 수 있도록 오직 환우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사회원은 후원하신 후에 성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010-2210-9106).

소중한 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사업에 천사회원이 되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으로 계속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 청평힐링센터 운영천사회원 10월 가입자 명단 (7명)

470. 나일주 471. 모순영 472. 유정희 473. 유지혜(류지숙) 474. 최유운 475. 이호은 476. 김란수

### 운영천사 회원명단

1. 이원옥	2. 최미경	3. 최영자	4. 유재선	5. 이명구	6. 김수영	7. 설충근	8. 이희수	9. 조주영	10. 단혜봉	11. 박철홍	12. 정동영
13. 조현신	14. 정경석	15. 이문희	16. 박종배	17. 이종성	18. 김갑희	19. 채운옥	20. 성기빈	21. 박은희	22. 박영기	23. 박재범	24. 박순화
25. 임광래	26. 한정택	27. 이성자	28. 강은희	29. 권희규	30. 송광수	31. 김덕상	32. 윤철현	33. 전동화	34. 이해란	35. 전미리	36. 김영신
37. 임승택	38. 장용훈	39. 이춘자	40. 오병화	41. 최수지	42. 하상의	43. 송명옥	44. 최범락	45. 정수영	46. 정지현	47. 문칠자	48. 정한종
49. 정해강	50. 최숙자	51. 윤 원	52. 최범학	53. 최유운	54. 최예운	55. 박정매	56. 정동준	57. 손명옥	58. 권경희	59. 사재신	60. 주하기
61. 이원영	62. 심 행	63. 이상수	64. 박해숙	65. 이상준	66. 최수경	67. 나선미	68. 김영관	69. 전우규	70. 김대현	71. 김희정	72. 구남진
73. 이중권	74. 정동영	75. 김양숙	76. 이주열	77. 변현명	78. 배경하	79. 최수연	80. 박지현	81. 이경은	82. 이정은	83. 신성한	84. 정훈기
85. 정희창	86. 정예은	87. 박효정	88. 하명종	89. 김미원	90. 신행진	91. 변영은	92. 유성진	93. 정주성	94. 김갑희	95. 박철홍	96. 흥명주
97. 김한숙	98. 무 명	99. 유성진	100. 성낙희	101. 권홍봉	102. 황보순	103. 이화영	104. 황정아	105. 황현등	106. 민성태	107. 김현숙	108. 고금진
109. 김용연	110. 계명산업	111. 그레이스 한	112. 아이린 김	113. 이향선	114. 이등주	115. 안서영	116. 도문식	117. 김명성	118. 한윤희	119. 윤성진	120. 권봉도
121. 김한숙	122. 정상희	123. 박유민	124. 이한나	125. 이용옥	126. 이민자	127. 김현숙	128. 이미영	129. 조영석	130. 박차련	131. 김면희	132. 박순화
133. 안정순	134. 김태연	135. 박혜숙	136. 양수진	137. 심재록	138. 김현숙	139. 오봉자	140. 이태종	141. 김대비다	142. 전재야	143. 조혜숙	144. 이병훈
145. 박혜정	146. 민민나	147. 이금형	148. 윤화진	149. 윤은주	150. 최명희	151. 청평힐링	152. 김화련	153. 안정희	154. 김영숙	155. 문예은	156. 임순미
157. 고영복	158. 김미희	159. 김사리	160. 박준영	161. 박효숙	162. 이석우	163. 이순주	164. 미엘리	165. 미예술	166. 이재용	167. 이종인	168. 정동영
169. 김필란	170. 유선정	171. 이강순	172. 황육남	173. 김희성	174. 이원경	175. 박경근	176. 김진월	177. 신진경	178. 김 영	179. 이돈구	180. 문종만
181. 강민숙	182. 오정민	183. 문지연	184. 문지수	185. 이다정	186. 이동구	187. 송희종	188. 이하은	189. 정윤호	190. 김순애	191. 안종복	192. 이병화
193. 유광현	194. 이돈구	195. 이용립	196. 안성훈	197. 박은순	198. 이영숙	199. 윤대묘	200. 최글렌	201. 김호네	202. 김혜원	203. 장승아	204. 정영신
205. 박영대	206. 양옥경	207. 오재원	208. H	209. 박성운	210. 홍지운	211. 이희숙	212. 권은미	213. 무명	214. 황순찬	215. 박미령	216. 유민성
217. 우찌마마슈아	218. 이은주	219. 박성운	220. 도명화	221. 박순화	222. 이시온	223. 정호진	224. 김순정	225. 김옥연	226. 윤채원	227. 원적외선원재료	
228. 김예송	229. 김수현	230. 장란숙	231. 김숙희	232. 남윤학	233. 남지영	234. 남해원	235. 김정자	236. 박선순	237. 오준석	238. 노은순	239. 이성해
240. 최혜령	241. 임계숙	242. 이승재	243. 연규홍	244. 김선경	245. 김선영	246. 손태정	247. 홍수연	248. 이인순	249. 정혜실	250. 한종석	251. 한희숙
252. 김애원	253. 박정희	254. 한경숙	255. 이기열	256. 정은영	257. 이유주	258. 이유겸	259. 최영춘	260. 김미옥	261. 김동수	262. 조재영	263. 이선
264. 최명애	265. 장승마	266. 이현미	267. 이주영	268. 이은주	269. 최해진	270. 손현미	271. 송문화	272. 윤용주	273. 빙영록	274. 최명자	275. 김성곤
276. 김동완	277. 김주희	278. 이가경	279. 신현구	280. 이정미	281. 민윤총	282. 이은주	283. 민노엘	284. 이주영	285. 김승정	286. 흥부네	287. 조범호
288. 정명자	289. 이우승	290. 조아나	291. 민정향	292. 박용천	293. 윤주동	294. 장승아	295. 조범호	296. 김명희	297. 홍순경	298. 이성림	299. 김무순
300. 양호경	301. 김주형	302. 권외자	303. 정명애	304. 조아나	305. 김길겸	306. CHOYEARIN	307. 광진관	308. 공은경로사	309. 권유승	310. 방원	311. 남기혁
312. 김소연	313. 윤종문	314. 박재연	315. 이하리	316. 민요단	317. 최홍석	318. 정복숙	319. 김시진	320. 최봉관	321. 이복순	322. 류승희	323. 김영혜
324. 이상마	325. 750204	326. 김민주	327. 김성규	328. 최혜령	329. 이액선	330. 이영숙	331. 민옥선	332. 장행자	333. 이은경	334. 유성진	335. 이상은
336. 최명애	337. 유지혜	338. 채해순	339. 전성훈	340. 정찬영	341. 김은정	342. 윤은혜	343. 맹은자	344. 정현자	345. 이호은	346. 김진숙	347. 정영신
348. 채지영	349. 양호정	350. 유성진	351. 김영남	352. 유철우	353. 유준모	354. 유현주	355. 윤종우	356. 최유운	357. 전나라	358. 허정만	359. 한송희
360. 도영화	361. 서정민	362. 정명신	363. 오창홍	364. 정찬영	365. 권동준	366. 박지영	367. 정준순	368. 강산금	369. 전영신	370. 송병석	371. 장향자
372. 정진숙	373. 최혜령	374. 노아방주	375. 강민석	377. 최영숙	378. 쥐트랄이엔씨	379. 후원금	380. 강민욱	381. 강진욱	382. 강현욱	383. 임지영	
384. 빛과소리교회	385. 정영신	387. 김태희	388. 박상준	389. 유통효	390. 박봉희	391. 박진미	392. 심규진	393. 김계식(모크상기대)	394. 이은섭	395. 서대원	
396. 이정현	397. 김순옥	398. 정현명	399. 도영화	400. 김영희	401. 반영록	402. 이화숙	403. 김미자	404. 김순하	405. 이병설	406. CULNUZL	407. 강만구
408. 강정화	409. 이경재	410. 민수희	411. 조규철	412. 윤경일	413. 오형식	414. 이중삼	415. 이자혜	416. 이현순	418. 김영례	419. 조미경	420. 유문화
421. 김윤순	422. 박경철	423. 황우건	424. 서종열	425. 신철수	426. 이성희	427. 박수정	428. 김숙희	429. 정명신	430. 강금내	431. 장은미	432. 박춘자
433. 박경철	434. 임주찬	435. 최승순	436. 김민자	437. 장행자	438. 김계숙	439. 박미순	440. 김민자	441. 구현주	442. 이영섭	443. 이선우	444. 김민자
445. 송미령	446. 김차우	447. 이민주	448. 이금순	449. 서금자	450. 김예운	451. 이금복	452. 이은지	453. 홍선표	448. 편마라	449. 김병식	450. 김수진
451. 송병석	452. 단선판	453. 김미라	454. 김형민	455. 김서연	456. 무명	457. 김세림	458. 정경희	459. 황명자	460. 김치우	461. 일지영	462. 유정희
463. 양복순	464. 한명희	465. 박영자	466. 김민진	467. 유정희	468. 박준이	469. 이해영	470. 나일주	471. 모순영	472. 유정희	473. 유지혜(류지숙)	

소중한 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를 위한 천사회원(1구좌 100만 원, 분납 가능)과  
씨앗헌금(자유 기부)에 참여하려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고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화 02-365-9106 | 송금계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 사람들교회

## 청평암환우 힐링센터



▲ 소그룹 모임



▲ 소식지 작업 협력



▲ 식당일 섬김



▲ 마침등산



▲ 마침등산



▲ 저녁 운동



# 목요 Precious Worship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는 매주 목요일 중보기도회를 가집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김\*자(담도암재발,장궁경부,질,직장전이) - 만역항암제 내성 생기지 않고 효과가 좋아 치유되기를
2. 장\*미(유방암,폐전이) - CT결과 뼈 전이가 진행되고 있음 11/6일 PET CT 촬영후 항암진행 하기로 함
3. 김\*진(유방암,림프전이) - 항호르몬제 부작용(관절통,말초신경병,손저림등)에 치유되길, 위염, 역류성 식도 염 치유하심 감사
4. 유\*희(대장암,난소,복막전이) - 재발되어 다시 항암시작 항암할 수 있는 체력과 은혜를 배풀어 주시기를
5. 배\*경(폐암) - 3주 간격의 독성항암 부작용(숨가쁨,기침,오심,통증,불면)등 치유되기를
6. 이\*형(폐암) - 임상이 잘 맞아 치유되고, 11/21 CT 촬영 결과에서 좋은 소식 듣기를
7. 서\*순(유방암) - 폐, 원쪽 눈, 뇌로 전이된 상태인데 항암(엔테투)에 내성 생기지 않고 사멸 되기를
8. 전\*희(난소암,복막전이) - 3주에 한 번 사용증인 만역항암제로 암성통증이 줄고 복부통증이 완전 사라지기를
9. 김\*일(폐암) - 폐암4기로 수술은 못하지만 호전되어 감사 항암주사에 내성 생기지 않고 완치되기를 원함
10. 엄\*판(유방암) - 치료 부작용(간상선물혹,골다공증,말초신경통,어지럼증)치유되고, 고통사고 후유증이 사라져 잘 걷고 운동할 수 있도록
- 11.곽\*정(난소암) - 골반내 재발암이 확실하여 다시 약을 바꿔 항암하기로 함 항암약이 잘 맞아 치료는 극대화되며 부작용은 최소화 되기를
12. 황\*진(유방암,간전이) - 양쪽 유방절제수술 잘 끝내서 감사, 이후 전이, 재발 없이 깨끗이 나아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원함
13. 이\*옥(유방암,흉선암) - 검사 결과 잘 나와서 감사, 항암 부작용(피부 가려움증)이 치유 되도록
14. 구\*주(유방암) - 표준치료의 과정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 12/24일 종합검사 좋은 결과 듣기를
15. 김\*수(다발골수종) - 아밀로이드 희귀질환 재발하지 않고 치유해 주시길, 심장이식,항암치료과정 부작용(호흡곤란,골다공증,빈혈)이 치유해 주시기를
16. 정\*순(유방암 뼈,리프전이) - 표적항암제후 암세포가 적아짐, 항암부작용(구내염,미각손상,변비,설사)최소화되기를
17. 김\*은(위암,난소,요관,직장,복막,폐,피부전이) - CT결과 한 사이클 항암을 더하기로 함, 항암 시 쇼크로 기절하는데 잘 맞고 치유되기를 원함, 피부로 전이된 혹들이 늘어가는데 사라지지를
18. 정\*영(난소암) - B형 임상약이 잘 맞아 치유되도록
19. 박\*자(신우암) - 더 이상 항암약이 없다고 합니다. 끝까지 좋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20. 이\*희(유방암) - 건망증 사라지고 몸의 만역력을 회복되어 벽혈구 축진제 맞지 않고 항암하기를 원함
21. 황\*자(폐암) - 항암 6차도 잘 맞을 수 있기를
22. 정\*희(유방암) - 현재 정기검진 받으며 추적관찰 중인데 1/21일 검사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23. 정\*정(난소암) - 11/6일 수술했습니다. 재발과 전이 없는 완벽한 수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24. 나\*주(충수암) - 하이백항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깨끗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25. 이\*애(육종암) - 육종암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수술로 인해 다리 신경이 끊어졌는데 회복되어 잘 걷고, 뛰기를 원합니다.
26. 최\*숙(육종암) - 독성항암 끝내고 다시 항암합니다. 약이 잘 듣기를 원하며, 머리에 종양이 생겨 감마니프합니다. 머리와 눈에 종양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27. 김\*덕(방광암,골반,치골전이) - 11/7일 처방되는 항암제가 하늘나라 약으로 변하여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 암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회

- |                      |  |
|----------------------|--|
|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 장 소 :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 ■ 말 쓰 : 유정옥 사모       | ■ 기도회 인도 : 이성일 목사                              |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건반/기타/그 외 악기연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옥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http://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Hospice Precious People  
[www.youtube.com/user/miholoveone](http://www.youtube.com/user/miholoveone)



## 함께 가는 길

내가 그를 만난 것은 20년 전 롯데캐슬에서 였다. 그는 롯데캐슬에서 꽃집을 경영하고 있었다.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에 맞는 일 이었다

그 때 나는 서울역 노숙자 사역을 하는 중이었다.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도 어려워 누군가 기도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기도할 곳도, 기도해 줄 사람도 없는 상태였다.

나는 그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했다. “기도할 사람이 두 사람 밖에는 없을 텐데요.”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두 사람이면 족합니다. 나도 화요일에는 약속도 안 잡고 오직 기도에 전념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우리는 화요일 밤 9시에 잠실 롯데캐슬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와 나 두 사람뿐이었다.

새벽녘까지 열심히 기도했다

그 다음 주엔 한 사람이 늘었다.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젠 이십 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좁디좁은 꽃집에 은박지를 깔고 앉아서 간절히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해 주었다.

기도회에는 초대교회처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들에서 식사를 담당해 줄 사람

소중한 사람들에서 모든 업무를 보며 예배를 인도해 줄 목사님

그곳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봉사자로 나서 주었다.

새벽녘에 그가 나를 집까지 바래다주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꽃집이 적자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기도회 하는 기쁨으로 즐겁게 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요.”

나는 충격을 받아 “임대료가 얼마인가요.”라고 물었다.

660만원이라고 짧게 말한다.

나는 집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일 년을 그 많은 임대료를 내면서 어떤 기색도 없이 즐거이 이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혜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했다.

또 다시 중보기도회가 열렸다.

어떤 집사님이 노숙인을 위하여 무언가를 후원하겠다고 했다. 매일 새벽에 서울역에서 천 명이 먹는 한 끼 식사비일까? 아니면 예배 후 300명이 먹는 점심 식사비 일까?

어느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물어 보려는데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사모님! 이 소식지에 보니 노숙인 전용 교회로도 쓰고, 자활 쉼터로, 무료 진료소로 쓰려고 사모님이 ‘찜’해 놓으셨다는 건물이 있네요. 제가 그 건물을 구입해 드리고 싶어요.”

“네? 뭐라고요?”

그 날 중보기도회는 기쁨과 찬양과 눈물의 기도회가 되었다.

주님은 내가 찜해 놓은 건물을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주신 것이 아니라 찜하고 기도한 지 3개월 만에 주셨다.

이제 중보기도회가 새로운 집에서 이루어졌다.

이 중보기도회는 추석이나 설 명절에도 계속되어 지금 1032회가 되었다.

지금도 화요일 오후 1시50분에 소중한 사람들에 모여 2시간 동안 뜨겁게 기도한다.

교회와 교파가 다르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는 2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송연숙 전도사님은 중보기도회를 위해 일 년여 동안 말없이 지켜온 꽃집을 정리 했다

그리고 우리 하나로 교회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했다.

얼마나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지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사람,

장애를 가지고 교회의 한 쪐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성도님들 모두를 한 식구, 한 가족처럼 보듬어 안고 가고 있었다.

그 때는 내가 간증 집회가 많았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외부로 나가게 되었는데

송 전도사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었다.

스케줄을 다 외워서 검토할 필요도 없었다.

교회에서 교회로 계속 운전해 주고, 먹을 것을 준비해 주고 입을 것을 마련해 주고...

내 간증을 듣고 또 듣고...

한 번도 싫증을 내지 않고 언제나 새롭다고 나를 격려해 주었다.

그렇게 6년이 세월이 쏟살같이 흘렀다.

2010년 1월 12일 아이티에 지진이 일어났다.

30만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었다.

전 세계에서 구호 물품이 들어갔다. 그러나 이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내가 먼저다라고 폭도로 변하니까 나누어 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유엔에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노숙자들에게 잘 나누어 준다고 소문이 나서 우리를 불렀다. 도미니카에 있는 구호물자들을 어떻게 아이티 국민들에게 잘 나누어 줄 것인가?

2010년 2월에 트럭 10대분의 물자를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티 국민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2010년 3월에 멕시코에 인디오 학교 건립을 했다. 인디오들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 고아원식으로 학교를 연 것이다. 송 전도사님과 6명의 봉사단이 양치질 하는 법부터 몸을 씻는 것을 가르치면서 아빠, 엄마가 인디오 농장에 가면 아이들을 그 시간 동안 돌보아 주는 것이다. 식사도 주고 집안에서 못하던 것을 다 하면서...

그리고 곧장 아이티를 들어갔다. 지진이 난지 2개월의 아이티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엄마는 아이를 안고 와서 고아원 앞에 50 미터씩 진을 친다. 고아원에서 그 아이를 받아 주면 그래도 밥은 먹일 수 있다는 간절한 심정에서다.

13세 이하만 고아원에 있을 수 있다. 14세부터 여자아이들은 한 끼 밥을 먹기 위해 몸을 판다. 콜레라가 창궐한 아이티는 죽음의 도시 같았다.

씨티솔레에 콜레라 병원이 있었다. 베니아판 같은 것이 침대다. 가운데가 동그랗게 뚫어져 있다. 그곳에 쓰레기통이 있고 배설물을 그대로 쏟아 붓는다.

수액주사 놓는 간호사도 없다. 그곳에 있다가 2-3천 명씩 죽어 나간다.

8-9살 남자 아이가 윗옷만 입고 아랫도리는 입지를 못했다.

윗옷으로 자꾸만 아랫도리를 감추려 한다. 흙이 묻어 있는 아이의 볼기...

아! 저 아이에게 바지를 지어 입혔으면...

송 전도사님의 입술에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진다.

글 / 유정옥

## 청평 힐링센터 암환우가 서울 노숙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 “전도폭발 훈련”

나에게 이 단어는 또 다른 “제자화 훈련”이라고 여겨졌다. 훈련과정 때는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고 교육받는다. 그러나 막상 전도 살습 당일에는 사람들의 참여율도 적다. 몇몇 교회에서도 전도폭발 훈련을 하는 목적이 복음 전파가 아닌 성도들의 수준을 좀 더 끌어올리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만큼 전도가 어렵다.

청평 힐링센터에서 전도폭발 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긴 알았다. 나는 당연히 이 역시 제자화 훈련의 또 다른 훈련이겠거니...라고 생각했었다.

10월 25일, 서울 소중한 사람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 차는 없고 사람들로 가득했다. 테이블들은 누가 내놓은 것이고 저 사람들은 누구인지 모른 채 어리둥절했다. 일단 다른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고 천천히 소중한 사람들로 걸어왔다.

소중한 사람들 건물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주차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아! 청평 암 환우들이 서울 노숙인들에게 전도하러 왔구나!”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몸의 아픔을 이기기 위해 진통제를 수없이 맞고 있는 암 환우들이 마음이 무너져내린 노숙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전도자는 암 치료를 위해 낮아진 면역력 때문에 하나같이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외치는 생명의 말씀들은 마스크로는 가려지지 않고 오히려 뚫고 나와 노숙인들의 허망하고 허탄한 인생에 잔잔히 울려 퍼졌다.



얼마 후 청평 힐링센터에서 전도폭발 수료식이라는 사진을 받았다. 하나같이 밝은 얼굴이다. 하나같이 건강한 모습이다. 영원한 생명을 전한 얼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얼굴이라서 그런가보다.

## 전도폭발 참여자 간증

### 왜! 내가 잘 모르는 타인에게 예수를 전하다니!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어도 전도란 언제나 어려운 숙제입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예수를 전해보긴 했지만 길에서 쉰 목소리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예수가 저렇게 싸구려(?)로 전해질 대상은 아닌데, 처음 본 사람이 저 간단한 말로 예수를 바로 알고 믿을 수 있을까? 성경 말씀 없이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교만한 저였습니다.

작년 12월 리트릿을 방문하게 되었고 집에 돌아가는 길은 감사하게도 한 리트릿 환우의 아드님 차를 타고 3시간 거리를 1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을 때 “권사님! 부탁이 있어요. 저놈이 예수를 몰라요. 자기가 잘된 게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아니, 차 타고 가시면서 예수 좀 전해주세요. 권사님만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환우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나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하나.... 예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으나 황설수설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환우의 소천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했다면 환우가 살아계실 때 아드님이 예수 영접했을까? 내게했던 환우의 부탁이 그의 유언이 되었고 그것은 이젠 갚을 수 없는 나의 빚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청평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입소했고 소모임을 하는데 조용조용 소녀 같은 환우가 전도폭발하고 좋았다는 갑자기 전도폭발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꼭 맞춤으로 전도폭발의 필요성과 사모함을 주셨습니다. 나의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의 심연을 들여다보니 거절당할까 봐, 낮을 가리는 나의 합리화였죠. 입소 후 독소 항암을 시작하면서 6개월을 있게 되고 세상에 제가 전도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컨디션이 버틸 수 있을까? 실습 날 항암 때문에 힘들면 어떡하지?  
다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도폭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실습 전 일주일은 이제껏 나의 항암 기간 중 제일 잘 자고 잘 먹게 하셔서 실습 당일은 최상의 컨디션이었습니다.

실습 날 날씨는 또 얼마나 좋았던지요. 처음 봤 분들께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88세 어르신이 내 쪽으로 몸을 틀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손을 귀에 대며  
“제가 교회를 이제껏 다녔어도 이런 말씀은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껏 제 말에 이런 태도로, 이런 말을 해줬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하는 말이 “진리”였고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전도폭발을 수료하면서 전도폭발을 함께 시작했던 전도폭발 동기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전도폭발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도 감사지만, 여러 이유로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던 이들도 전도폭발을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이 감사고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보시기엔 다 사랑스러우셨을 겁니다.

이제 저는 전도의 한 걸음을 겨우 내딛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는 날까지 예수를 전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글/ 배\*경

## 서울역 이야기

### 서울역 전도

소중한사람들은 매주 서울역 광장으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었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아직도 차가운 겨울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가난한 우리의 이웃에게 오늘도 소중한 밥 한그릇, 시원한 음료 한잔

정성껏 대접해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접해 드리는 밥만으로는 그분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노숙인분들께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 소망을 드려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분들의 거칠어진 손을 잡아드리며 전도지를 건네 드립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 소중한사람들 교회



▲ 서부침례교회

▲ 식사전경

▲ 이대부초 학부모성경동독팀

▲ KBS신우회



▲ 조이어스

▲ 이화유치원

▲ 에클레시아

▲ 개인봉사자



▲ 서빙고온누리교회학부모성경

▲ 선한목자교회

▲ 함께올래

▲ 이대부초 학부모성경동독팀



▲ 강동온누리교회

▲ 소중한찬양선교단 찬양인도

▲ 모래내교회

▲ 미윤수 전도사

### 소중한사람들 교회 매일 오전 10시 30분 예배와 점심나눔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 지 20년을 되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120명의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10월에는 1일, 15일, 22일, 29일 이대 부속 초등학교 학부모 성경 동독반 3일 서부침례교회 5일 KBS 기독 신우회 8일 조이어스 교회 10일 이화 여대 부속 유치원 학부모 성경 동독반 12일 에클레시아 19일 함께올래 25일 강동 온누리교회 26일 모래내교회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개인 봉사자들은 권경희, 고순미, 김성수, 김영옥, 김진숙, 김현숙, 김미정, 박진희, 송경옥, 이소영, 이영훈, 임윤엽, 양지니, 전두희, 진경희, 정차현, 최경희, 최금련, 정성훈, 최인선, 황귀용, 한에스더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용수, 송기승, 이지영, 정종대, 진승연, 허청만, 한송희, 김경숙, 김광래, 정경희, 임맹자, 박인혜, 박문희, 장종숙, 강덕희, 김명옥, 이주희, 이황희...개인 봉사자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노숙인들에게 영양있고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이 매일 예배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명임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전도팀: 이주희, 김명옥, 진승연, 정종대, 송기승, 최영화)

소중한사람들 무료 급식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월요일 이범주 화요일 김재정 수요일 정기종 목요일 조진영 금요일 이은철 토요일 유정옥 주일 이성일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매일 오전 11시 예배와 점심 나눔



▲ 서울역광장 간식나눔



▲ 선한목자병원 무료진료



▲ 협시바이미용봉사



▲ 학부모성경동독팀 간식나눔

### 10월 노숙인들에게 나눔

\*10월 11일 (토요일) 26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0월 26일 (토요일) 27명의 노숙인들에게 이발 봉사를 해 주신 이발 미용 봉사단에게 감사드립니다.

\* 빵과 과일, 그리고 여러 후원 물품으로 노숙인분들을 위해 섬겨주신 후원자 분들의 섬김으로 따스한 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0월 후원 물품내역						
후원일	후원자	후원물품	후원수량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처
10/2	오민숙	포도	9박스	10/5~8	간식나눔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4	푸드뱅크	빵/부식	9박스	10/6	간식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0/4	무명	제パン	15판	10/5~	무료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5	KBS신우회	육계장사반면	20박스	10/5~7	간식나눔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5	KBS신우회	쌀 20kg	12포	10/5~	무료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7	푸드뱅크	빵/부식	4박스	10/13	간식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0/10	이화유치원	식용유	2박스	10/10~	무료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11	푸드뱅크	빵/부식	9박스	10/13	간식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0/11	무명	쌀 10kg	1포	10/12~	무료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14	푸드뱅크	빵/부식	4박스	10/20	간식나눔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15	(주)노아	고기	9박스	10/15~	무료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18	푸드뱅크	빵/부식	9박스	10/20	간식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0/21	푸드뱅크	빵/부식	7박스	10/22	간식나눔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22	학부모성경동독팀	간식	2박스	10/22	간식나눔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25	푸드뱅크	빵/부식	4박스	10/28	간식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0/28	김성실	홍시	3박스	10/28	무료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28	푸드뱅크	빵/부식	4박스	11/3	간식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0/31	최경희	미역	1박스	10/31~	무료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10/31	하나프라임	소고기	7박스	10/31~	무료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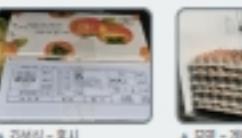
▲ 주노아 - 떡지고기



▲ 푸드뱅크 - 떡



▲ KBS신우회 - 특제당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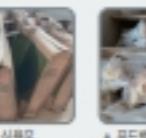
▲ KBS신우회 - 홍시



▲ 김성실 - 계란



▲ 무명 - 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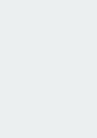
▲ 도연숙 - 포도



▲ 이화유치원 - 식용유



▲ 푸드뱅크-빵-부식



▲ 하나프라임 - 소고기

## 상담 · 치유 · 봉사

###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17년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7년동안 한결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이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 주신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 1시부터 진료가 있다



### 증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돋기 위해 모이는 화요 증보기도 모임이 어느덧 1030회가 되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의 종합적 기도 제목을 기도한 후 참석자 개개인의 증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한다. 증보기도 모임은 소중한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돋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하기를 바란다.

### 증보기도 제목

#### 1. 소중한 사람들 사역

- 1) 노숙인들이 예수 영접, 건강, 직장,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 2) 소중한사람들교회 365일 예배와 점심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3) 진료, 상담, 사워,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자
- 4) 타국인을 섬기는 소중한사람들 이주민 센터 사역을 위해

#### 2.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

- 1) 최고의 의료진이 동역 할 수 있도록
- 2) 암환우들의 영, 육간의 완전한 치유

#### 3. 소중한사람들 해외사역

고아 1:1후원 양육과 무료 급식-미얀마,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 4. 아이티 사역

- 1) 교육 - 방과후 학교, 컴퓨터교육 2) 고아 1:1후원 3) 싱글맘 사역 4) 형무소사역 5) 무료진료 6) 손전등 보급

#### 5. 치유 - 최유운, 김정신, 김진수, 이엘리, 황우진, 김연자, 장은미, 박준자, 이해옥, 김수진, 류지숙, 유정희, 이운주, 배운경, 이해형, 서미순, 이재희, 구현주, 김종수, 황명자, 권오성, 장영희, 정은정, 나일주, 김태은, 정충순, 구성자, 전상희, 김동일, 이신애, 최성숙, 정산영, 박선영, 엄명란, 김홍덕, 곽호정, 입소해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 6. 박효정, 이제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례, 김현충, 최은희, 이해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준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윤, 김형식, 권유송,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준기, 최영자, 이경숙, 김지연, 유필균, 조규철, 이민규, 이병설님이 암에서 완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7. 신형진님이 9차까지 맞은 스판라이자 주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차 이후 주사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의료보험 공단에서 주사를 놔주지 않고 있습니다. 스판라이자 주사가 절실했던 상태입니다. 신형진이 다시 스판라이자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8. 앤드류 서 구명을 위해

19살에 폰티악 감옥소에 들어가 50세가 되어 출감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앤드류 서는 80년을 옥중생활을 해야하는데 30년을 모범수로 있었습니다. 미국은 아무리 모범수여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앤드류 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감한 것입니다.

앤드류 서의 집과 생필품과 직장과 옆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여자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후원자님들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증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street9106@naver.com 010-2210-9106<문자로>

## 소중한 사람들 해외 사역

### 아이티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가 무법천지로 변했다.

무장 경단의 폭동으로 경찰서와 은행이 불타고 도시에 총탄이 난무하면서 지금까지 수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곳곳에 시신이 굴러다니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이 나라엔 현재 대통령이 없다. 현대 대통령인 총리마저 전격 사퇴했다. 국회도 없다.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에서 온 나라가 미수리장이 된 것이다.

17일 워싱턴포스트 등 다수의 의선에 따르면 이달 들어 경단은 교도소 2곳을 습격해 수천 명의 범죄자를 탈옥시켰다. 국제 공항과 항구, 최소 12곳의 경찰서를 습격했다.

다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힘겹게 병원으로 걸어가는가 하면 물에 탄 차들과 타이어, 부서진 건물에 거리에 널려 있다.

하지만 폭동을 막을 경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국민을 도와야 할 공무원도 보이지 않는다. 올해 1월 선출직 공무원 일기가 만료돼 국회의원도 없는 실정이다.

유엔은 부상당한 환자를 치료할 인력과 장비, 병상, 약품, 혈액 부족으로 보건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훈련을 끝난 무장 경단이 세력을 키웠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아리엘 양리 총리를 요구해 왔다. 양리 총리는 지난달 7일까지 사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말 이를 번복하고 캐나다로 출국했다. 캐나에 방역 피켓을 모성하러 간 것이다.

아이티 사회는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 하실지 그 날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다.

재배마을에 이어 귀동마을에 지어진 초등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아이티의 일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과 후원을 바랍니다.

다른 마을에도 계속해서 초등학교와 교회가 지어질 것입니다.



### 미얀마

소중한 사람들은 2008년부터 김동호, 조현정 선교사님과 동역하여 현재 미얀마고아 후원과 초등학교 운영, 중 고등학교 건립 및 운영 후원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쫑칼레이 기독교 초등학교는 2015년 4월 미얀마 교육부로 공식 인가를 받고 사립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고, 미얀마에서 최초로 인가받은 기독교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혜택을 받으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통하여 양육 받고 교육받은 고아들이 이젠 새로 들어오는 고아들을 돌보는 교사들로 일하고 있다니 불교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놀라고 또 놀립니다.

그리고 십년이 넘는 시간을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 사랑의 사역이 계속 되어져서 수많은 미얀마 고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형형색색으로 단풍이 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의 본색을 단풍으로 드려낸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색인가요?

저마다 황홀한 빛깔로 물들어 갑니다. 나는 너의 색으로 너는 나의 색으로...

10월에도 이곳을 사랑하시어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쟁기시는 손길들... 감사드립니다.

목적 현금을 보내주신 미국 뉴저지의 조은래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선한 청지기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호승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십일조를 보내주신 김용수 송연숙, 김영진 손미나, 이성웅 이한나, 전 혁 주함숙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강덕희, 고무원, 구명신, 김가람, 김갑희, 김연진, 김영림, 김영선, 김태희, 김혜원, 나은선, 노아, 도문식, 문영숙, 박민희, 박문희, 박수현, 박윤희, 박철규, 박혜수, 서혜주, 성찬영, 송기승, 송희종, 신형진, 심지현, 유광현, 유영재, 유정옥, 윤원석, 이고은, 이세린, 이은주, 이재희, 이주희, 임나리, 임맹자, 정재근, 장종숙, 정경희, 정영남, 조미영, 최진옥,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은숙 님께 감사드립니다.

기관, 단체 현금을 보내주신

world mission 사와 (사)온누리약국 복지회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보내주신 (기감)안양감리교회, (예장) 경주제일교회, (예장)영락교회와 베이직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개인 감사현금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benevity에 감사 드립니다.

김명수, 신현우, 주영훈, 김용수 송연숙, 이성웅 이한나, 유진상 황귀용, 장란숙, 한 에스더 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선교현금을 보내주신 조경숙 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미얀마, 멕시코, 중국, 북한의 고아들을 섬기는 일에 현금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CMS를 통해 매달 후원해 주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섬김 현금을 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앞날의 희망마저 잃고 거리에서 유리하던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65 일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이티, 미얀마, 멕시코, 중국, 북한 등 열악한 환경에서 부모 없는 고아들이 희망과 꿈을 키우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현금을 보내주신 손길을 통하여 암환우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환우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암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사역을 위해 힘에 견도록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이 모든 사역을 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 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신형진님이 스피란자 주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청평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 입소해 있는 암환자

신형진, 최유운, 김정신, 김진수, 이엘리, 황우진, 김연자, 장은미, 박춘자, 이해옥, 김수진, 류지숙, 유정희, 이운주, 배운경, 이해형, 서미순, 이재희, 구현주, 김종수, 황명자, 권오성, 장영희, 정은정, 나일주, 김태은, 정종순, 구성자, 전상희, 김동일, 이신애, 최성숙, 정신영, 박선영, 엄영란, 김흥덕, 박효정, 입소해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청평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서 암을 치유 받은

박효정, 이제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례, 김현충, 최은희, 이해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춘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온,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윤, 김형식, 권유송,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춘기, 최영자, 이경숙, 김지연, 유팔균, 조규철, 이민규, 이병설님이 암에서 완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년을 한결같이 소중한 사람들과 동역해온 후원자님들에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후원자님들께 선물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사람들 유정옥 드림

# 2024년 10월 소중한 사람들교회 현금

(2024년 10월 01일 ~ 10월 31일까지)

## ● 십일조 현금 ●

강덕희(140,000)	고무원(200,000)	구명신(200,000)	김가람(420,000)	김갑희(624,000)	김연진(800,000)
김영림(100,000)	김영선(50,000)	김영진,손미나(1,700,000)	김용수,송연숙(350,000)	김태희(150,000)	김혜원(360,000)
나은선(300,000)	노아(1,000,000)	도문식(500,000)	문영숙(200,000)	박민희(100,000)	박수현(200,000)
박윤희(200,000)	박철규(270,000)	박혜수(500,000)	서혜주(500,000)	성찬영(1,000,000)	송기승(170,000)
송희종(500,000)	신형진(450,000)	심지현(300,000)	유광현(350,000)	유영재(350,000)	유정옥(200,000)
윤원석(200,000)	이고은(580,000)	이성웅,이한나(500,000)	이세린(260,000)	이은주(1,000,000)	이재희(300,000)
이주희(300,000)	임나리(600,000)	임맹자(150,000)	정재근(450,000)	장증숙(100,000)	전현,주한숙(500,000)
정경희(200,000)	정명남(100,000)	조미영(100,000)	최진옥(200,000)	하나님감사드립니다(430,000)	한은숙(300,000)

## ● 목적현금 ●

한청지기(5,000,000)	이호승(3,000,000)
-----------------	----------------

## ● 개인 감사현금 ●

Benevity(507,855)	강덕희(50,000)	강성희(70,000)	강윤옥(10,000)	곽혜란(50,000)	권정연(100,000)
급식후원(10,000)	김경숙(20,000)	김경식(10,000)	김남이(100,000)	김대식(10,000)	김도영(30,000)
김동민(10,000)	김명옥(80,000)	김미선(50,000)	김미정(20,000)	김선아(100,000)	김선희(50,000)
김선희(50,000)	김성희(30,000)	김성희(30,000)	김영미(50,000)	김영선(10,000)	김용수,송연숙(300,000)
김정훈(10,000)	김종명(100,000)	김진환(100,000)	김태세(40,000)	김태희(80,000)	김하영(100,000)
김행심(10,000)	김현서(20,000)	김현숙(10,000)	김희정(50,000)	나종숙(90,000)	노숙자돕기(30,000)
노원균(30,000)	류한금(10,000)	박금용(100,000)	박대수(10,000)	박동준(10,000)	박문화(40,000)
박봉희(50,000)	박성은(100,000)	박세준(50,000)	박세준(100,000)	박인혜(40,000)	박정애(30,000)
박정목(90,000)	박정환(20,000)	박진희(50,000)	배희영(10,000)	변경자(20,000)	
석동신(20,000)	성명숙,이경민(50,000)	송계순(30,000)	심요엘(10,000)	심윤화(30,000)	안형옥(100,000)
양복길(13,000)	오경님(20,000)	오선향(100,000)	오선희(50,000)	오지석(100,000)	우건화(50,000)
유재학(120,000)	유정옥(10,000)	유진상,황귀용(200,000)	윤재윤(30,000)	윤화(10,000)	이기형(40,000)
이미밀(100,000)	이상훈(10,000)	이선아(100,000)	이성웅,이한나(550,000)	이성혜(5,000)	이연옥(10,000)
이연옥(10,000)	이영숙(20,000)	이영주(50,000)	이용섭(50,000)	이웅남(30,000)	이원옥(100,000)
이윤아(30,000)	이윤정(100,000)	이은영(50,000)	이인영(50,000)	이재성(50,000)	이재욱(100,000)
이재욱(100,000)	이정선(100,000)	이주희(60,000)	이지은(10,000)	이춘(100,000)	이태희(40,000)
이현경(30,000)	이현우,이성남(50,000)	이황희(40,000)	임경희(30,000)	임맹자(80,000)	임미선(10,000)
임윤엽(110,000)	장광육,장자인(50,000)	장란숙(200,000)	장종숙(30,000)	장지호(50,000)	전혜영(10,000)
정명애(20,000)	정유진(100,000)	정윤(50,000)	정일권(50,000)	정종대,진승연(100,000)	정주연(50,000)
정태현(10,000)	조성애(50,000)	조을남(10,000)	조정희(10,000)	조진영(50,000)	최미진(50,000)
최성은(10,000)	최진복(20,000)	하명숙(20,000)	한경숙(10,000)	한보성(100,000)	한송희(100,000)
한에스더(200,000)	한창현(40,000)	허동욱(20,000)	홍복실(100,000)	황우진(30,000)	

## ● 교회 감사현금 ●

(기감)벧엘교회(100,000)	(기감)선재중앙교회(100,000)	(기감)선한목자교회(100,000)	(기감)안양감리교회(200,000)	(기성)식도성결교회(50,000)
(기성)아현성결교회(100,000)	(예장)경주제일교회(200,000)	(예장)문화교회(100,000)	(예장)양의문교회(30,000)	(예장)영락교회(300,000)
(예장)하나로교회(100,000)	베이직교회(1,000,000)	비전성서침례교회(30,000)	예봉교회(50,000)	예수사랑교회(30,000)
한국기독교장로회(50,000)			주찬양교회(50,000)	

## ● 기관 감사현금 ●

World Mission(2,689,200)	(a)컨피테크(100,000)	갓피플웨딩(50,000)	계영산업(50,000)	글로벌비즈니스앤파트너스(50,000)
길벗여행사(100,000)	로고스터디카페(20,000)	마라나타(30,000)	사랑의센터(50,000)	씨엠지코리아(100,000)
온누리약국복지회(300,000)	창세에스엔티(50,000)			엔씨마수학학원(100,000)

## ● 미얀마고아 선교현금 ●

(주)글로벌비즈니스(40,000)	곽상미(40,000)	김명자(100,000)	김부녀(40,000)	김재민(40,000)
박경근(40,000)	박지영(40,000)	백천성(40,000)	안성훈(승명목)(40,000)	유경미(40,000)
이성자(40,000)	이성자(40,000)	이혜란(40,000)	정명애(40,000)	조갑동(40,000)
최신애(40,000)	추운희(40,000)			주영훈(40,000)

## ● 중국고아 선교현금 ●

윤혜경(40,000)	이혜란(40,000)	조춘식(40,000)
-------------	-------------	-------------

## ● 멕시코고아 선교현금 ●

김동만(40,000)	윤혜경(40,000)	이혜란(40,000)
-------------	-------------	-------------

## ● 북한고아 선교현금 ●

(주)글로벌비즈니스(40,000)	강길화(40,000)	강현미(40,000)	권경희(20,000)	김명호(20,000)
김소명(5,000)	박승호(50,000)	유재미(40,000)	윤혜경(40,000)	윤혜원(20,000)
이순주(20,000)	이혜란(40,000)	정미주(40,000)	정미주(40,000)	한상준(10,000)
	황주영(15,000)			함수아(40,000)

## ● 북한선교 현금 ●

(n)엔파이브(100,000)	남기국(10,000)	박혜영(30,000)	신경자(100,000)	이은혜(50,000)
이혜란(50,000)	장승아(50,000)	전해봉(20,000)	지선옥(20,000)	

## ● 베트남선교 현금 ●

강면구(40,000)	박진희(40,000)	정종대,진승연(200,000)

<tbl\_r cells="3" ix="1" maxcspan="1" maxrspan="1" usedcols="3

# 2024년 10월 CMS

(2024년 10월 01일 ~ 10월 31일까지)

강금내(30,000)	강도숙(10,000)	강면구(20,000)	강명미(10,000)	강석우(50,000)	강선숙(20,000)	강순옥(10,000)	강연정(3,000)
강은순(10,000)	강인순(50,000)	강전혁(10,000)	강현미(20,000)	강화란(10,000)	고견화(10,000)	고남균(10,000)	고명희(1,000)
고순영(10,000)	고영희(10,000)	고정숙(10,000)	공은숙(50,000)	곽상미(10,000)	구남진(20,000)	구종해(5,000)	권미희(30,000)
권민정(30,000)	권유미(10,000)	권정아(10,000)	권혁천(10,000)	김경민(10,000)	김경옥(30,000)	김경화(10,000)	
김귀남(30,000)	김기일(3,000)	김나형(100,000)	김대원(10,000)	김동관(30,000)	김동균(50,000)	김동만(50,000)	김동영(10,000)
김라함(30,000)	김명수(300,000)	김명순(10,000)	김명옥(100,000)	김명희(10,000)	김문숙(10,000)	김미숙(10,000)	김미화(10,000)
김민경(30,000)	김민자(20,000)	김번욱(10,000)	김베드로(10,000)	김병식(100,000)	김보연(30,000)	김복자(10,000)	김부녀(30,000)
김선미(1,000)	김선아(10,000)	김선우(10,000)	김선희(10,000)	김성란(20,000)	김소라(10,000)	김소망(10,000)	김소연(40,000)
김소자(5,000)	김수경(10,000)	김수영(20,000)	김수정(30,000)	김수현(30,000)	김숙미(10,000)	김순복(20,000)	김순하(10,000)
김슬아(10,000)	김승훈(30,000)	김연옥(10,000)	김영상(5,000)	김영성(5,000)	김영숙(10,000)	김영순(10,000)	김영옥(20,000)
김영인(1,000)	김영주(30,000)	김영진(40,000)	김오례(10,000)	김목겸(20,000)	김용경(10,000)	김용기(10,000)	김원희(10,000)
김유진(10,000)	김은경(10,000)	김은주(5,000)	김은희(100,000)	김의환(5,000)	김인자(50,000)	김인주(50,000)	김일행(20,000)
김재동(30,000)	김재정(80,000)	김정숙(10,000)	김정화(20,000)	김종미(10,000)	김종선(2,000)	김종순(10,000)	김주남(30,000)
김주애(20,000)	김지은(20,000)	김지현(30,000)	김진아(5,000)	김창영(10,000)	김천일(20,000)	김태조(10,000)	김태훈(5,000)
김향순(5,000)	김현미(10,000)	김현자(30,000)	김현희(10,000)	김혜린(5,000)	김혜숙(50,000)	김혜원(20,000)	김호년(30,000)
김호숙(10,000)	김효정(20,000)	김호진(강탈민)(50,000)	김희숙(30,000)	김희자(10,000)	김희정(10,000)	나영미(20,000)	나주열(10,000)
나지용(5,000)	남혜경(20,000)	노란이(30,000)	노한준(30,000)	노현자(20,000)	도문식(30,000)	라미영(5,000)	류명순(5,000)
류승한(10,000)	명은자(10,000)	명주현(10,000)	무명(50,000)	무명(30,000)	문경자(5,000)	문상철(10,000)	문수민(100,000)
문은정(50,000)	문혜영(10,000)	민경희(30,000)	박경근(30,000)	박경옥(10,000)	박경화(10,000)	박경희(10,000)	박다은(5,000)
박명희(10,000)	박미경(10,000)	박미영(20,000)	박민선(10,000)	박민정(20,000)	박배근(10,000)	박봉선(10,000)	박상신(10,000)
박서애(10,000)	박서운(20,000)	박성명(30,000)	박성희(10,000)	박소연(20,000)	박숙희(5,000)	박순영(10,000)	박시룡(15,000)
박양미(4,000)	박자경(10,000)	박자연(50,000)	박정순(20,000)	박종호(10,000)	박지민(10,000)	박지상(10,000)	박지원(차은미)(10,000)
박진선(10,000)	박진철(10,000)	박찬국(30,000)	박창권(10,000)	박채연(50,000)	박철모(10,000)	박한숙(100,000)	박현숙(5,000)
박혜정(10,000)	박효숙(20,000)	방소민(10,000)	방소윤(10,000)	백규진(20,000)	백현미(10,000)	백현숙(10,000)	변상민(10,000)
변요섭(10,000)	변준섭(10,000)	사순희(10,000)	서상숙(20,000)	서정국(50,000)	서혜원(20,000)	석진혁(30,000)	성기빈(40,000)
생준호(10,000)	손경순(30,000)	손석원(20,000)	손성미(2,000)	손요셉(10,000)	손진아(10,000)	손현경(10,000)	송경옥(50,000)
송경자(30,000)	송규화(50,000)	송상신(10,000)	송연숙(50,000)	송은경(10,000)	송정우(30,000)	송정은(20,000)	송하정(10,000)
신승무(50,000)	신영주(10,000)	신용순(10,000)	신정용(30,000)	신현숙(10,000)	신현우(200,000)	심영경(30,000)	심정섭(30,000)
안강희(3,000)	안경모(30,000)	안신미(30,000)	안유진(20,000)	안효철(10,000)	안훈숙(10,000)	안희영(10,000)	양미란(50,000)
양성숙(10,000)	양성진(20,000)	양수정(30,000)	양영훈(5,000)	양재희(10,000)	양현아(20,000)	여인귀(30,000)	염영태(5,000)
오재원(10,000)	오진숙(5,000)	용기숙(50,000)	무홍균(10,000)	원남숙(10,000)	원상희(5,000)	원신애(50,000)	원현정(3,000)
유미선(3,000)	유복희(10,000)	유부자(10,000)	유선옥(10,000)	유수남(20,000)	유이례(10,000)	유정열(10,000)	
유준서(5,000)	유현숙(10,000)	유혜원(5,000)	유화연(10,000)	윤두원(10,000)	윤만순(20,000)	윤상길(5,000)	윤상훈(5,000)

윤영자(50,000)	윤용식(10,000)	윤인초(10,000)	윤정희(5,000)	윤혜경(100,000)	윤혜원(10,000)	윤홍찬(10,000)	윤희숙(30,000)
윤희영(1,000)	이가영(10,000)	이강선(10,000)	이강섭(20,000)	이강혁(10,000)	이건호(50,000)	이경진(10,000)	이경화(30,000)
이공이(100,000)	이귀남(30,000)	이금복(10,000)	이기문(2,000)	이길성(30,000)	이동욱(10,000)	이명숙(10,000)	이명순(10,000)
이명주(10,000)	이문정(10,000)	이미경(10,000)	이방훈(50,000)	이병기(10,000)	이보미(10,000)	이복자(100,000)	이산록(20,000)
이삼종(50,000)	이선미(20,000)	이성순(10,000)	이성자(20,000)	이수민(10,000)	이수정(5,000)	이숙자(10,000)	이순아(10,000)
이순주(10,000)	이애연(10,000)	이애희(10,000)	이영관(10,000)	이영미(30,000)	이영석(100,000)	이예원(10,000)	이익순(20,000)
이원경(10,000)	이유진(30,000)	이은경(30,000)	이은숙(10,000)	이은주(50,000)	이은혜(50,000)	이의신(10,000)	이의화(10,000)
이제동(박안순)(10,000)	이재은(20,000)	이재행(10,000)	이재희(30,000)	이정민(10,000)	이정원(10,000)	이정은(10,000)	이제호(10,000)
이종수(10,000)	이종수(40,000)	이주아(20,000)	이주희(50,000)	이준목(110,000)	이지훈(50,000)	이진실(100,000)	이찬의(50,000)
이창호(50,000)	이향순(50,000)	이현주(20,000)	이현희(20,000)	이혜경(10,000)	이혜성(10,000)	이화명(5,000)	이희정(10,000)
임경희(10,000)	임경희(20,000)	임미향(20,000)	임미희(10,000)	임상귀(10,000)	임수섭(3,000)	임신화(10,000)	임영이(2,000)
임영환(30,000)	임정화(10,000)	임진옥(30,000)	임춘옥(20,000)	임혜순(30,000)	장문심(100,000)	장민홍(10,000)	장소영(10,000)
장순녀(20,000)	장순희(5,000)	장승아(10,000)	장현희(10,000)	장윤정(10,000)	장윤정(10,000)	장은별(50,000)	장인화(30,000)
장현숙(30,000)	전경진(100,000)	전명선(10,000)	전명숙(50,000)	전재국(10,000)	전하영(50,000)	전하영(300,000)	전하영(300,000)
전해봉(10,000)	정경아(5,000)	정광덕(50,000)	정덕규(20,000)	정두섭(10,000)	정미경(20,000)	정미선(50,000)	정미소(10,000)
정민경(10,000)	정성분(10,000)	정순남(10,000)	정애리(20,000)	정명호(30,000)	정유나(50,000)	정유정(20,000)	정유진(30,000)
정윤경(10,000)	정윤호(10,000)	정은희(10,000)	정의영(10,000)	정이랑(10,000)	정인철(50,000)	정재겸(5,000)	정재이(5,000)
정진숙(10,000)	정혜자(10,000)	정해진(10,000)	정현지(20,000)	조경찬(100,000)	조경희(10,000)	조광남(10,000)	조광현(10,000)
조근정(10,000)	조미숙(10,000)	조미원(60,000)	조새름(10,000)	조성립(10,000)	조성완(10,000)	조수아(20,000)	조수영(10,000)
조연희(20,000)	조운정(100,000)	조은명(10,000)	조주상(20,000)	조춘호(5,000)	조현미(10,000)	조혜향(10,000)	주영훈(300,000)
지선옥(12,000)	지영자(50,000)	진미제(2,000)	진순애(1,000)	차희승(40,000)	채송화(10,000)	채정임(10,000)	채지영(30,000)
천민정(10,000)	천정희(100,000)	천주리(10,000)	천희숙(20,000)	최가영(20,000)	최경선(10,000)	최금련(30,000)	
최민행(10,000)	최민홍(10,000)	최상해(10,000)	최명숙(30,000)	최명실(5,000)	최목순(10,000)	최원희(10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이재(20,000)	최임부(10,000)	최재휘(100,000)	최정순(50,			

#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01 소중한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사람들 교회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중림파출소 뒤,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후문 앞).

## 소중한 사람들에 헌금을 보내시려면

- 01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자동이체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전화 02-365-9106, 팩스 02-365-9104)
  - 02 웹사이트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www.ppp.or.kr](http://www.ppp.or.kr)
  - 03 자유롭게 보내실 분은 후원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5-404-619993 소중한 사람들 교회
  - 04 해외에서 보내시려면
    - \* 우리은행 1005-902-662715 은행/지점명 WOORI BANK CHUNGNIM DONG BR SWIFT CODE : HVBKKRSEXXX 소중한 사람들 교회
    - \* 은행송금 WOORI AMERICA BANK 419019146
  - 05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해 천사회원이 되시려면 1구좌(100만원)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헌금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5-0059-6115-03 소중한 사람들 교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 사람들 교회
  - 06 소중한 사람들 확장 소망 현금 계좌는 아래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 사람들 교회
- ※ 후원금을 변경하시거나 확인하시려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 소중한 사람들 후원신청서 (F. 02-365-9104 작성 후 팩스로 보내주세요.)

신청인	성명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후원내역	후원목적 (V표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목적지정 안함 <b>해외고아 1:1 결연(4만원)</b>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사업 <input type="checkbox"/> 미얀마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교회 <input type="checkbox"/> 아이티	<input type="checkbox"/> 암환우 힐링센터 <input type="checkbox"/> 멕시코	<input type="checkbox"/> 중국	<input type="checkbox"/> 북한
	후원금액	원	후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일시후원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후원(CMS) <input type="checkbox"/> 직접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CMS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출금일자	매월 / <input type="checkbox"/> 6일 <input type="checkbox"/> 16일 <input type="checkbox"/> 26일	통장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통장 <input type="checkbox"/> 법인통장				

한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8길 12 TEL 02-365-9106 FAX 02-365-9104 [www.ppp.or.kr](http://www.ppp.or.kr)

미국 [Precious People] 41 E. Prospect Ave. Mt. Vernon, NY 10550 U.S.A.

아이티 DELMA 75, PORT-AU-PRINCE, HAITI TEL 509-3655-7153

멕시코 Lote 4 Man Zana 7 s/n nacionalistade Sanchez Tabada la Meza Ensenada, B.C cp22790 TEL 521-646-947-9250

미얀마 No724/D, No(41) B,E,P,S Lane, Lower Mingaladom Road, Sintngu @TR,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TEL 951-645858, 959-73086721

중국  
북한